

소명의 섬에서 사명의 배를 타라

(사도행전 20:22-30)

소명과 사명은 유사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이자 일상과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명이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파송입니다. 한자의 의미대로 사명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오늘 연장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며 사명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표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비극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사명을 잃고 헛된 충동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헌신하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넘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온전하고 자기다운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본질은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주저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울의 걸음을 이끈 본질적인 동력은 사건이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신비주의적 체험에 갇힌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성령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거북이가 육지에서 이긴 것은 상대의 실수에 의존한 고단한 승리

불과합니다. 육지에서의 거북이는 열등하고 피곤한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자기 본래의 자리인 바다로 들어가면 해엄치며 완전한 승리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바다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본능과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면 끝없는 소모적인 경쟁 속에 허덕이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이 비추시는 말씀 안에서 해엄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밝히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명을 따라 걷는 여정에는 언제나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미는 힘과 막는 힘이 공존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땅끝까지 밀어붙이시며 사명을 향해 전진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성령은 결박과 환난의 현실을 미리 알려시며 우리를 멈춰 서게 만드는 막는 힘으로도 다가옵니다. 바울은 두 힘이 교차하는 기로에서 편안한 안전이나 자기 안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선택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오직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듯이 바울 역시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자기 판단과 혈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마귀의 속임수에 쉽게 흔들릴 만큼 연약합니다. 사단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더라도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만이 악한 생각을 거두고 거룩한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 안에 은혜의 복음이 살아 숨 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의 직업이나 사

회적 신분이 어떠한 복음이 살아 있지 않다면 헛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일등으로 달린다 해도 복음이 없다면 결국 영원한 패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자는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의 가치를 소유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포도나무가 제 가지에서 탐스러운 포도를 맺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사과를 맺으려 헛된 욕심을 부리면 삶은 갈등과 피폐함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포도나무임을 잊고 세상의 사과를 부러워하며 헛된 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헛수고에 그칠 뿐입니다.

성령께 깊이 매여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의 음성에 온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영혼에 각인하고 십자가를 삶 속에 새겨 넣을 때 비로소 참된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아 감당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이자 참된 삶의 기쁨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소명의 섬에서 과감하게 닻을 올리고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뜻을 높이 올리고 사명의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축복입니다.